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2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인쇄물디자인 도용 심각

캘린더 성수기를 맞아 일부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획·디자인한 '96캘린더'를 발주자의 상호만 바꿔 사용하는 디자인 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 중구 인현동, 충무로 일대에서 캘린더 샘플을 자체 제작해 판촉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덤핑을 제의해 캘린더 인쇄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

저작권법 등을 들어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실익이 별로 없어 대부분 포기하고 있다. 인현동에서 매년 기획사에 제작비를 주어 캘린더 샘플을 만든 후 캘린더 수주에 나섰던 S인쇄사 사장은 "우리가 제작한 캘린더 샘플을 모인쇄사에서 그대로 모방해 거래처에 20% 정도로 할인된 금액에 견적서를 넣어 결국 거래처를 잃었다"면서 "이같은 모방과 덤핑행위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K사 사장은 "모방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캘린더는 물론 카드, 심지어 회사 카탈로그까지 표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행위가 만연되면 인쇄물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인쇄업계 전체의 이미지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같은 모방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등의 강화도 시급하지만 인쇄인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3M 엔지니어링 완전자흡식 펌프 개발

독특한 가소성 임펠러를 가진 완전자흡식 화전 펌프가 개발돼 인쇄업계에 공급되고 있다. 쓰리엠엔지니어링은 최근 2년여에 걸쳐

자체개발한 로타리 프레스 펌프를 합지기사용업체 및 제지공장에 공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적합한 농도가 있는 풀을 자동공급할 수 있는 펌프로서 기존 기어식 펌프의 수명보다 3배정도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날래 교체시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양이 이송가능하고 날개 교체도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본모형 3MLE 시리즈는 기동터크와 운전소음이 감소되고 임펠러 수명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위생면에서도 분해청소가 용이해 우유, 식품제조사에서 이용이 적합하다. 또 3MPD는 기본모형 3MLE를 부분개조하여 경사 임펠러를 부착해 만든 것으로 설치상의 문제점도 해결했다.

● 스캐너 도입이 많아졌다

원색분해기인 스캐너가 울들어 급증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판업계에 따르면 이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미려한 색감에 대한 일반인들의 욕구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원색분해물 수요도 빠른 속도로 다중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는 약 90대의 스캐너가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중 25개 전문제판업체에 55대를 비롯, 종합인쇄업체에 약 18대, 언론사 및 비영리단체에 약 15대, 교육기관 2대 등이다.

이는 올해초의 78대에 비해 12대가 증가한 대수이다. 특히 올해는 동방컬러프로세스, 한일칼라, 광성, L.S.Y 등 4개 업체에서 토털시스템을 도입했다.

토털스캐너의 특징은 품질의 고급화를 가할 수 있다는 점과 보카



시, 몽타주작업, 기하학적 도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창조적이고도 어려운 작업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광고 업계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수출원고용필름 면세 바람직

인쇄물수출 증대를 위해 원고용필름 및 아연판킷에 대한 세관당국의 면세조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는 인쇄업체들이 수출인쇄물 제작을 위해 원고용필름과 아연판킷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통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쇄물의 수출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필름은 현재 CCCN3705-0206인 인쇄·제판용필름으로 적용되고 있어 35%의 높은 관세를 물고 있다.

그러나 이 필름은 일반인쇄물을 제작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제판용필름이 아니고 외국의 도서, 카달로그, 포장인쇄물 등 외국어로 표기된 인쇄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제판용필름이므로 일반제판용필름과 구분하여 무세로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이들은 수출원고용 아연판킷도 일반아연판과 구분, 제판용필름과 마찬가지로 무세로 통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원고용 필름은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8호로 재수출면허 대상물품으로 지정돼 관세담보금을 징수하고 수출완료시에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소량의 원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50%의 높은 간이세율이 부과, 업계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원고용 필름은 통관시 감정가격 산출을 위해 규격 및 수량을 조사하는 기간이 보통 3~5일이나 소요되고 있어 바이어가 요구하는 선적기간을 맞출 수 없으며, 필름의 재반출 시기가 최장 1년을 넘지 못해 선방으로부터의 추가주문을 받으려면 일단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아 인쇄물수출경쟁력은 물론 수출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카드 연하장시장 활기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 카드전문생산업체에서는 연말특수 준비로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 일반 판매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미 지난해로부터 몇몇 기업체에서 연말에 사용할 카드 및 연하장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해외발송용 카드의 매기가 일기 시작, 서서히 카드시즌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카드전문생산업체는 바른손, 카드랜드, 삼성인쇄공예사 등 30~40개, 올해 선보인 카드는 바른손이 300종, 카드랜드가 150종, 삼성인쇄공예사가 100종 등 총 1천여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 15종 총 1800만장을 발매한 바 있는 체신부에서도 상당량의 카드를 제작, 판매에 곧 나설 것으로 보여 각 카드제작업체에서는 저마다의 시장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카드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보다 20~30% 신장된 2백억~3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이같은 카드수요의 증가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